

● 연중 제 17주일 강론

우리의 현실은 하늘나라의 기대와 모순되어 있어 의심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누구한테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승리의 행진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창조 때부터 세상이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갈등과 모순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기쁜 소식은 알아듣기도 어렵고 알아보기조차 어려울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요? 설상가상으로 하느님 나라를 소개하는 비유 말씀도 ‘감추어진 것’에 속합니다.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효력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 농부가 남의 땅을 갈다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44ㄴ절) 다른 이의 밭을 간 이 농부는 소작농이거나 날품팔이꾼일 것입니다. 그는 보물을 숨겨두는 치밀함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동안의 바람과 계획은 다 팽개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밭을 살 정도로 용감합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낫니다. 귀한 것이기에 더욱 정당한 방법으로 보물을 차지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46절) 그 시절에 천연 진주는 매우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이 상인은 오랫동안 값진 진주를 찾아 떠돌았습니다. 좋은 진주만을 취급하는 전문가이니 금방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았을 겁니다. 애타게 찾던 것이기에 이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밭에 묻힌 보물이나 희귀한 진주는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와 상인은 무엇과도 비

교할 수 없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소유하고 싶은 열망에 다른 모든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가진 것을 다 처분합니다. 짝을 이루는 이 두 비유는 하늘나라의 가치와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의 무한한 기쁨, 그리고 그에 따르는 노력과 대가를 잘 보여줍니다. 보물이 어느 날 갑자기 거저 굴러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누리던 안정과 평화와 소유를 포기하고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기쁘게 하느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갑니다.

마지막 비유의 배경은 갈릴래아 호수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47절)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면 물에 돌아와 그물에 걸린 고기를 가려내는 일부터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등을 구분해 냅니다.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부정한 것에 속합니다(레위 11,10--12; 신명 14,9--10).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48절) 우리가 하느님을 의식하든 안 하든, 하느님께 마음을 쏟든 안 쏟든 세상살이는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착한 사람한테나 악한 사람한테나 모든 것이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49--50절) 고기를 잡을 때가 있고 그것을 가려낼 때가 있듯이, 선과 악이 명확히 구별될 때가 옵니다. 누구도 그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맞습니다. 악을 가려내시는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날까지는 악이 선과 섞여 있는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51ㄱ절) 제자들은 이 비유 설교를 알아듣지만 다른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공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52절)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이는 집주인과 같아 자기 공간의 물건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꺼낼 수 있을 뿐더러 오래된 것과 새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이것을 풀이하며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이는 예수님의 설교 주제인 하늘나라를 익힌 사람입니다. ‘새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요, ‘옛것’은 구약성경과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교 율법학자라면 예수님의 언행에 비추어 구약과 율법을 풀이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공간 열쇠를 맡기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은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간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공간의 주인입니다. 현명한 이라면 그때그때 살면서 필요한 해답을 말씀에서 찾을 것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적당하게 잘 끄집어 낼 줄도 알고 오래된 것에 새로운 것이 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의 공간에서 오랫동안 숨겨진 보물을 발굴해 낼지도 모르고, 그토록 애타게 찾던 진주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기쁨을 찾은 이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말씀을 맛바꿀 것입니다. 다시 물으십시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51ㄱ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다 열정을 쏟아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공간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뒤섞여 혼란스럽지만 아무쪼록 선과 악이 판가름 나는 종말에는 하느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지숙(한남성서연구소 수석 연구원)

성 암브로시오의 사은 찬미가

○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를 온 세상이 삼가 받들어 모시나이다.

● 하늘의 모든 천사, 케루빔과 세라핌이 끊임없이 소리 높여 노래 부르오니 거룩하시도다!거룩하시도다!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 엄위하신 주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가득하도다.

●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대열 무수한 예언자들의 대열 눈부신 순교자들의 무리 아버지를 높이 기려 받드나이다.

○ 땅에서는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가 그지없이 엄위하신 아버지 친아드님, 받들어 모셔야 할 외아드님 위로자 성령을 찬미하나이다.

● 영광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아드님, 사람을 구원하시려, 몸소 사람이 되시고자 동정녀의 품을 마다하지 않으셨나이다.

○ 죽음의 가시를 쳐보리시고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셨나이다.

● 지금은 하느님의 오른편, 아버지의 영광 안에 계시며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 보배로운 피로써 구속받은 당신 종들 저희를 구하시기 비옵나니 저희도 성인들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올드레아 모임 안내

다음주 미사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사목회의 안내

오늘 미사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교육관 비품구입 위해 캐나다안타이어 머니를 모금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정숙하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교우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개설한 우리 공동체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www.catholic.or.kr/seobunews

가입 문의: 서기(한택종 519 8883 8488)

● 주간 전례

- ▶ 8월 1일(금) 오후 8시, 성 알폰소 주교기념
- ▶ 8월 2일(토) 낮 12시, 성모 신심미사

● 성시간

8월 1일(금) 오후 8시 미사 및 성체헌시

● 성모 신심미사

8월 2일 토요일 낮 12시 성모신심미사

● 청소년 캠프

- 일 시 : 8월 25일~27일(월~수)
- 장 소 : Bruce Peninsula National Park
- 회 비 : \$60
- 준비물 : 침낭, 운동화, 샌들, 수영복, 세면도구, 따뜻한 옷
- 접수마감 : 8월 10일 (청소년 담당)

● 7월 8월 구역모임

각 구역에서는 자유롭게 구역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합할 수 있는 구역모임을 하여 주십시오.

희망이 살아있는 삶의 향기

진실로 다른 사람의 가슴속에 한 점 별빛으로 빛날 수 있는 한마디 작으나 소중한 말만으로도 인생은 외롭지 않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말을...

내 가슴 깊이 묻어둔 말을 털어 놓는 나의 말에 귀 기울리며 진실로 마음을 열 사람 진실로 상대의 눈을 쳐다보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주변을 둘러보면서 찾아봅니다.

우리는 외롭기에. 자꾸...목소리가 높아지고 혼자 고립되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래서 사람을 그리워 하나 봅니다.

은은하고 감미로운 목소리 그 한마디 말로서 많은 인생 흘러보내도 어려운 세파를 뚫는 힘 주셨기에 따스한 별빛으로 빛날 수가 있는 말 가슴속에 깊은 사랑 고이게 하여 사는 세상 더욱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내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고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 줄 그 사람. 내 말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따스한 미소로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살면서. 가까이애 두고 싶기만 한 그런 사람입니다.

2008-30

2008. 7. 27.

연중 제 17주일

- ▶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10월- 3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미사전례

해설 | 김용하 차주 해설 노재현

화답송 | 주님 제가 주님의 가름침을 얼마나 사랑하나이까.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당신께서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어린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성가

입당 (13) 주님을 그리나이다
 봉헌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성체 (177)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퇴장 (25) 사랑의 하느님
 장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독서

7 월 27일	오세종	오미경
8 월 3일	이동기	이정숙
8 월 10일	김용하	김희선

봉헌

7 월 27일	신상우	신계연
8 월 3일	오세종	오미경
8 월 10일	이동기	이정숙

복사

7 월 27일	류지헌	류지홍
8 월 3일	구하람	노승범
8 월 10일	류지홍	김건우

천교

8 월 3일	환희팀	8 월 13일	영광팀
8 월 17일	장미팀	8 월 27일	백합팀

2008 년 6월 29 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20.00
성전건립:	\$ 260.00
Total :	\$ 880.00